

국제해사기구 에이그룹(A Group) 이사국 12연임 달성에 전력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33차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7일(월)부터 12월 6일(수) 동안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되는 IMO 제33차 총회 참석 등을 위해 11월 26일(일)부터 11월 29일(수) 2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IMO의 실질적인 상임이사국인 A그룹 이사국을 11연임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 기간 중 12월 1일(금)에 열리는 IM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A그룹 이사국 12연임이 결정된다.

* IMO 이사국은 A그룹 10개국, B그룹 10개국, C그룹 20개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연임 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영국 방문 기간 중 ▲우리나라가 IMO A그룹 12연임을 달성하기 위해 IMO 총회에서 기조연설 및 회원국들과 교섭하고 ▲한-영 다우닝가(Downing Street Accord) 합의 후속 조치로서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한편, ▲IMO 회원국 등의 중장기 지원사업 발굴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IMO 지속가능한 해상운송협력 신탁기금 포괄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그리스, 모로코, 카타르의 관계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해운탈탄소와 항만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김희곤 (044-200-5825)